금주의 법구-〈대반열반경〉
공연히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겉모습만 치장하지도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2월 26일)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법당 휠체어 문턱보다 불자 마음 문턱 낮추자

'250만 장애인 시대, 불교는' ① 불교 장애 인식 현주소

노덕현 · 박진형 기자

4월 5일 한국불교 대표사찰인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선 양만석 혜광맹인불자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 수십 번도 넘게 찾았던 사찰이건만, 이제야 마음 편하게 사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이날은 조계사 일주문에 조계사 법당과 시설물,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시각장애인용 안내 '촉지도'가 세워진 날이었다.

양만석 회장은 "작은 안내도보다, 불교계가 우리 장애인 불자들에게 관심을, 신경을 써주는 것에 마음이 울컥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교계가 휠체어 통로,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조계사와 같이 사찰을 안내하거나 함께 법회를 보고, 더 나아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구 250만 시대, 불자 장애인들의 신행활동을 위해 불교계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넘어 신행기반 마련, 인식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장애인 시설 현황

휠체어 진입로 있는 사찰	15곳
장애인 화장실 있는 사찰	17곳
장애인 법회나 장애인 모임 있는 사찰	1곳

장애인 불자, 사찰가도
모임, 안내 없어 '쓸쓸'
사찰 신행기반 단 1곳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불교계 신행활동 미약
"신심은 삶의 원동력"

사회 활동 늘어나는 장애인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신 통계인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251만명으로 1997년 42만명, 2004년 161만명 등 매년 증가했다.

미영순 전국저시력인연합회 회장은 "등록 장애인의 폭발적인 증가는 장애 사실을 스스럼없이 밝히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도 2015년 대비 각각 1.3%포인트, 1.2%포인트 증가한 39.0%와 36.0%를 기록하는 등 사회 전반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의 활동 증가에도 불교계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최근 장애인 불자 시집과 콘서트 등을 개최한 '보리수아래'의 최명숙 회장은 "장애인 불자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사찰 순례하기보다 오래도록 편하게 신행활동을 이어가길 원한다. 삶에서 신심은 또 다른 원동력이지만 이 바탕이 되는 불교계 기반은 미약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모임 있는 주요사찰 '1곳'

그렇다면 불교계에서는 얼마나 장애인들의 활동기반이 있을까. 본지가 4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등 주요사찰 35곳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모임이나 법회가 진행되는 곳은 원심회가 있는 조계사 단 1곳에 불과했다. 복지법인을 통해 장애인센터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은 수덕사, 불국사, 고운사 등 많았지만 정작 사찰 내 신행모임이 있는 곳은 극소수였다. 반면 휠체어 통로를 비롯해 장애인 화장실 등 기초적인 인프라는 문화재 사찰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월정사, 수덕사 등 주요사찰에 대부분 갖춰져 있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불교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장애인 불자들도 부처님 제자로 함께 신행 활동하는 도반이라는 인식이 자리했으면 한다. 대중이 함께 열린 마음으로 받아준다면 휠체어가 넘기 힘든 법당의 문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조계사가 4월 14일 장애인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하는 장애인불자 대법회를 진행하고 정기법회로 2019년부터 매월 1회 장애인 정기법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 4.3 희생 영가여 왕생극락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해원상생의 법고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계종은 4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3 피해자 스님 16명을 비롯한 희생자 3만여 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했다. 푸르던 제주도를 빨갛게 물들였던 4월 3일의 희생자들은 70년이 지나서야 위로받을 수 있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가들이 이제라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길 바란다. 글= 박진형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본격화

문화재청,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 신청서 제출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燃燈會)'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종목으로 '연등회'를 선정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3월 31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사업은 본격화됐다.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실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 6년(866년)과 진성여왕 4년(890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라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이후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연등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 20년(1166)에 백선연



〈삼국사기〉에 첫 기록 확인돼
1천여 년 이어져온 불교축제
연속성 강점… "등재에 최선"

이 사월초파일에 연등회를 시행했고, 고종 32년(1245) 사월초파일에 최이가 연등회를 열어 밤새도록 기악과 연희를 벌인 것이 오늘날 연등회로 계승됐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등회는 중지됐으나, 민간에서는 민속행사로 남아 호기놀이 등 세시풍속으로 전승됐다.

근대에 들어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강연회, 음악회 등 현대적인 문화행사의 형식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열렸지만, 해방과 6.25 전쟁 이후부터는 제등행렬이 다시 이뤄지며 연등회 복원이 이뤄졌다. 이후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공휴일로 제정되면서 현대 연등회 행사는 본격화 됐으며, 1996년부터는 연등행렬과 더불어 불교문화마당 · 어울림마당(연등법회) · 회향한마당(대동한마당) 등 행사를 추가해 국민적인 전통문화축제로 발전했다.

연등회는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개최,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해 연등회 행사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등회의 전승과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한국불교의 고유 문화제인 연등회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며 역사와 환경에 대응해 재창조되고 공동체에 정체성,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무형유산 개념과도 잘 맞다"고 평가하며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연등회 보존위원회,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등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등회는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에 개최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불교 고유 의례인 영산재를 포함해 총 19건이다. 신성민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